

남도에 부는 배구 열풍

‘한·일 탑매치’ 이어 9월까지 국내대회 4개·세계그랑프리 등 잇따라 개최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국제·국내 배구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새롭게 배구 붐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광주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렸던 한·일 V리그 탑매치를 계기로 오는 9월까지 총 5개의 굵직한 대회가 광주·전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해남·24~29일)에 이어 광주 9인제 배구대회(광주·25~26일), 대통령배중·고연맹전(순천·5월), 대학연맹전(화순·9월) 등 4개의 국내 대회와 세계그랑프리여자선수권(목포·8월) 등 국제대회 1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처럼 배구대회가 지역에서 잇따라 열림으로써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한·일V리그탑매치가 열린 이

틀동안 1만여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듯이 지역 팬들의 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베이징올림픽 출전 좌절로 침체되었던 한국배구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해남서 열리는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는 을 첫 대학배구대회이다.

대학 1부 8개팀, 2부 4개팀, 여대부 4개팀 등 총 16개팀이 참가해 6일간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을 시즌 관도를 예측할 수 있는 대학 배구의 주요 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대회는 인하대·경기대·한양대·성균관대 등

‘빅4’의 화끈한 경기와 함께 대학 스타들의 화려한 개인기로 지역 배구 팬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회에 이어 대학배구연맹전이 9월 화순에서 열린다. 화순 하니움(HANIUM)체

육관 개관 기념으로 개최되는 이 대회에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배구에 이어 중·고생들의 배기 넘친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통령배 중·고연맹전이 내달 순차로 뜨겁게 달글 것으로 보인다.

엘리트 배구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도 새롭게 선보인다.

광주배구협회가 주최하는 광주 9인제 배구연맹회장기전은 광주9인제 배구대회가 25~26일 광주염주종합체육관과 송원여상 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배구협회 산하단체인 9인제 배구연맹(회장 박길재)이 배구인구 저변 확대와 아마추어 배구 활성화를 위해 여는 이번 대회에 직장·클럽·부녀회팀 등 순수아마추어 45개팀이 참가해 전국과 화합의 장을 갖는다.

총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는 이번 대회는

특히 9인제 배구에 향수가 짖어있는 배구팬들에겐 또 다른 흥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대회 2009 그랑프리세계여자배구대회가 오는 8월 14일부터 3일간 목포에서 치러진다.

세계여자배구의 활성화를 위해 1993년 창설된 이 대회는 세계 상위 12개국 여자국가 대표팀이 150만달러의 상금을 놓고 매년 겨루는 세계 최고의 여자배구 대회이다.

총 6개조로 나뉘어 예선전을 펼치는 이번 대회에 한국은 브라질·일본·독일과 함께 H조에 속해 리그전으로 경기를 갖는다.

광주배구협회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대회가 계속 열립으로써 지역 배구팬들의 관전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울려 침체된 지역배구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팀 추가 창단에 주력”

해남서 대학배구 개최 조영호 대학배구연맹회장



한 지역 학교에서도 힘써왔다.

별교에서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하는 청호기 배구대회가 바로 조 회장이 사비를 들여 창설한 대회이다.

처음엔 별교지역 팀들만 참여했지만 이를 거듭할수록 팀이 늘어나 현재는 광주·전남지역 순수 아마추어 70여개팀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최대 규모

의 생활체육배구대회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전북·경상도 지역에서도 대회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한 조 회장은 “대학 규모 확대에는 생각이 없지만, 타 지역에서 계속 합류의사를 밝히고 있어 고심 중이다”고 밝혔다.

같으로 조 회장은 “오는 런던올림픽 등 세계 무대에서 한국배구의 위상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수 선수·우수지도자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969년부터 배구심판을 맡아온 조 회장은 지난 84년 LA올림픽·88년 서울올림픽·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96년 애틀란타올림픽 등 올림픽 4회 연속 국제심판으로 참가했으며 특히 92년 대회에 선 미국과 쿠바의 결승전 주심을 보기도 했다.

또한 지역배구 활성화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광주·전남지역에 대학팀이 1개뿐인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팀 창단을 위해 대학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며 반드시 새 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별교 출신으로 스포츠를 통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첫승 목마른 석민

머리 염색으로 기분 전환

“오늘 삼성전 패전땐 샥발”



피겨 여왕의 남자

피겨퀸 김연아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KCC스위첸 페스타 온 아이스 2009’를 앞두고 23일 오후 일산킨텍스 특설링크에서 스템판 립비에스(스위스)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승리투수가 되지 못하면 쑥발하겠지.” KIA 타이거즈의 투수 윤석민이 24일 삼성 라이온즈전 선발로 나서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평균자책점(2.33)과 함께 다음 공동 2위(14승)에 올랐던 윤석민은 올 시즌 세 차례 마운드에 올랐지만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LG 트윈스와의 선발에서 4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평균자책점이 6.00까지 솟아 선발진 중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침울하고 있는 에이스가 첫 승을 향해 네 번째 도전에 나선다.

첫 승 제물로 삼은 상대는 지난 11일 9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았던 삼성이다.

이날 팀이 10회 연장에서 1-2로 패하면서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윤석민은 7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호투했다. 137개의 공을 던져 프로데뷔 후 자신의 최다 투구수도 기록했다.

윤석민은 얼마 전 기분전환을 위해 머리를 밝은 색으로 염색했다.

팀의 에이스로 제 몫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지난 LG전 부진에 대한 속상함을 달래기 위해 변화를 준 것이다.

미리 스타일에 변화를 준 윤석민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삭발투혼’까지 예고했다.

윤석민은 23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 앞서 “지난 등판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스스로 화나 분을 참지 못했었다”며 “24일 경기에서 팀이 승리하더라도 선발승을 거두지 못할 경우 삭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팀의 승리를 자신의 손으로 이끌고 싶다는 에이스로서의 책임감과 승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에이스로서의 명예회복을 위해 ‘삭발투혼’까지 준비한 윤석민은 승리 사냥을 위해 23일 저녁 양현종과 함께 격전지인 대구에 미리 짐을 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양·순천·여수 선두 다툼 치열

정종식 육상 3관왕… 전남 도민체전 오늘 폐막



제48회 전남도민체전 폐막을 하루 앞두고 광양시·순천시·여수시의 선두 다툼이 치열하다.

영광군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 3일째 경기에서 광양시가 종합득점 13,575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순천시(13,200점)와 여수

시(12,925점·이상 23일 오후 5시현재)가 바짝 그 뒤를 쫓고 있어 대회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순위 다툼이 예상된다.

육상경기에서는 정종식(여수시) 3관왕, 김아름(목포시)·김혜선(광양시)이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정종식은 이날 영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자부 100m(11초07)·멀리뛰기(7m02)·400m 계주에서 각각 1위로 골인, 대회 첫 3

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여자부 경기에서 김아름은 100m(12초63)·400m 계주에서 우승, 400m(1분01초61)와 800m(2분26초71) 1위 김혜선과 함께 2관왕에 올랐다.

한편 사격경기(나주종합사격장)에서는

담양군이 우승했고 여수시와 보성군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궁도경기(스포티움궁도장)에선 구례군이 금메달, 고흥군·담양군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여자부 경기에서 김아름은 100m(12초63)·400m 계주에서 우승, 400m(1분01초61)와 800m(2분26초71) 1위 김혜선과 함께 2관왕에 올랐다.
한편 사격경기(나주종합사격장)에서는
담양군이 우승했고 여수시와 보성군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궁도경기(스포티움궁도장)에선 구례군이 금메달, 고흥군·담양군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제43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 대진표

•기간: 2009년 4월 24일~5월 2일
•장소: 서울목동야구장

